**가면산장 살인사건 감상문**

심미연

‘가면산장 살인사건’의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는 정말 유명한 추리소설가이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만 따로 모아놓은 칸이 있어서 유명한 작가인가 보다 생각을 하다가 ‘아름다운 흉기’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쩌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히가시노 게이고는 원래 이과생 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이공계열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도 자신의 분야로 책을 낸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작가는 추리소설을 썼고, 다른 추리소설 작가들보다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

나는 왜 제목이 가면산장 살인사건일까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제목으로만 봐서는 가면을 쓴 살인자가 산장에 있는 등장인물들을 살인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인데, 이 소설에서 실제 가면은 딱 한 번 등장한다. 주인공 다카유키가 처음으로 산장 안을 들어갈 때 대문 앞에 붙어있던 가면이다. 그런데 소설을 읽고 난 후, 다카유키를 제외한 이 소설의 등장인물 모두가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카유키 또한 가면을 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다카유키는 약혼녀인 도모미에 대한 배신임을 알면서도, 도모미의 친척인 유키에를 짝사랑한다. 도모미가 사라진다고 해도 둘은 이미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인데도, 다카유키는 도모미를 살해하려 한다. 하지만 바보 같은 다카유키는 이 사실을 도모미에게 들켰고, 도모미는 스스로 자살을 택한다. 경찰은 이 사건을 자살로 판정하고, 다카유키와 도모미의 가족간의 관계도 끝날 것이라 생각했지만, 둘의 관계는 도모미가 사망한 이후까지도 이어지는데,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나는 다카유키도 하나의 뻔뻔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다카유키는 정말 바보인 것 같다. 그의 삶의 목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모미가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남자답게 헤어졌어야 했고, 도모미 가족의 재산과 물적 지원이 탐이 났다면 돈 앞에 무릎을 꿇던가 했어야 했다. 그리고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정말로 현실적인 생각을 해 봤을 때 다카유키는 도모미 덕분에 유키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유키에에 대한 사랑은 커녕, 유키에가 누군지도 모른 채 이번 생을 살았을 수도 있다. 내가 다카유키였다면, 도모미에게 평생을 고마워하면서 살 것 같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알게 해 주었고,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해주며, 큰 그릇이 아닌 다카유키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모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며, 그녀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 하여금 깨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연극을 한 도모미의 가족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도모미의 가족이라면 이렇게까지 인내심을 가지지 못할 것 같다. 나의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죄책감까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살려둘까? 아무리 가면을 쓰고 하는 연기라 하더라도 어떻게 상황에 집중하며 범죄자와 태연하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확실한 증거를 찾자마자 살해할 것 같다. 내가 감방에 가게 되어도 그럴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다카유키가 그랬던 것처럼 자살로 꾸며서 꼭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약해서 나를 도와준 누군가를 배신하는 짓은 못한다. 차라리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을 하기로 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 전에는 어떤 성별을 가졌더라도 기쁘기도 하고 약간의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다시 서로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기로 한 결혼을 하는 게 맞다 생각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죄 없는 사람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살해하는 것은 정말 나쁜 행동이다.

꼭 다카유키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 것은 아닌데, 난 앞으로 관찰력과 기억력이 좋아져서 각 사람들의 특징과 성향을 알고 싶다. 물론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는 정말로 어떤 성격인지 잘 알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싶어서이다. 다카유키가 도모미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을 했다면 도모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겠지만,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순간에는 사랑에 눈이 멀어 도모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